

# 도내 초·중·고생 안전에 만전 기한다

### 도교육청, 외부 전문가 점검반 구성 학교 앞 교통시설·실험실습실 등 집중 점검 진행

#### 개선책 권고·매뉴얼 보급

전라북도교육청이 외부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꾸려 도내 14개 초중고교를 상대로 안전 컨설팅을 가졌다. 각종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 취지다. 27일 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은 소방기술사, 도로교통공단, 전기·가스공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등 외부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구성 지난 한달 간 구이중 등 도내 14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마쳤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학교 앞 교통시설, 안전교육, 학교시설 실험실습실, 유해물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일선 학교에 개선책을 권고하고 매뉴얼도 보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 안전교육 교육과정 5차시 편성과 교직원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점검 컨설팅을 통해 구이중 정문 앞 신호등 및 반사경 설치를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요청하고 지자체, 경찰서와 함께 협의를 결과 방화동안을 이용 설치할 예정이며, 전주사중은 반사경 설치를 전주중앙여고는 정문 앞 신호 등 설치와 화재 시 비상대피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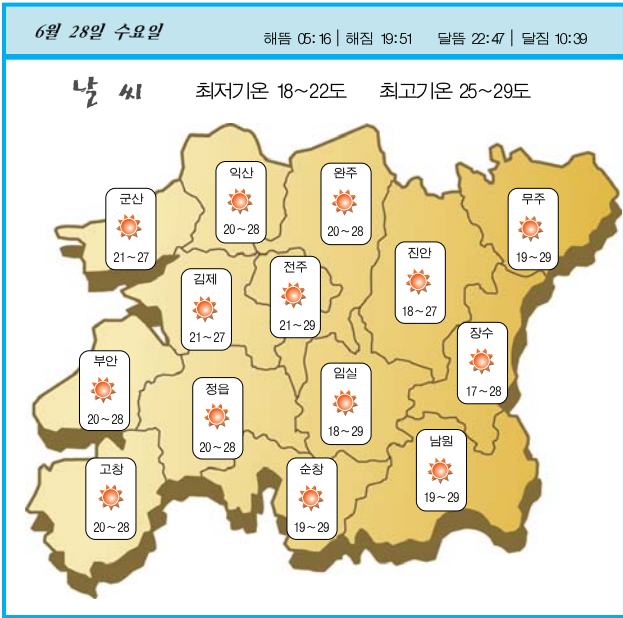


**작은 평화의 소녀상** 익산 원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내에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27일 제막했다. 원광고 학생들이 마련한 평화의 소녀상은 전국 전국 고등학교 중 64번째로 건립됐으며 전북지역에서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다.

개폐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전주 인후초에 대해선 정문 앞 횡단 보도를 이전하는 방안과 전주풍남중 현관 앞에 차량 통행이 많아 후문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한국경비축산고는 인도와 가로등 설치물, 전일초는 정문 앞 중앙분리대 설치 군산동고는 정문 앞 보도와 차도의 구분을 익산중은 정문 앞 시야 확보를 위한 반사경 설치를 권고했다. 이리 부송중은 정문 앞 횡단 보도 노

면표시 설치 전북체육중은 정문 앞 반사경과 과속방지턱 설치 등도 권고하였으며, 전주동초 정문 앞 반사경 설치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후 지자체에서 설치 완료하였다. /정해은 기자



### 전북대 사대부고, 장학퀴즈 왕중왕 결승 진출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가 지난 24일 방송된 EBS 장학퀴즈 왕중왕전에 참가해 최종 결승에 오르는 쾌거를 올렸다. 기존 개인 경쟁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 학생의 단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장학퀴즈에서 전북 사대부고팀은 공주 한일고와 세화고, 세광고 등 전국 10개 고교 MVP 팀들과 자웅을 겨뤘다. 그 결과 전북대 사대부고 공서영, 양효진(2학년), 노서영, 조서영, 편미혜(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몽쳐야 쫄다' 팀은 전체 2위를 차지해 내달 1일 방송되는 최종 결승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30여 명의 서포터즈도 함께 참여해 열띤 응원의 힘을 보여 주었으며 학생들은 일선에 새로 지리 잡은 EBS 디지털사육견 역할을 통해 새로운 진로 체험의 기회도 가졌다. 김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장학퀴즈에서 좋은 성적은 거둔 것은 단합된 힘의 결과라며 '장학퀴즈 최종 결승전과 오는 8월 열리는 고교 퀴즈 배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해은 기자



## 생태 환경 상징 수달 보호 강화

### 전주시, '수달 보호대책 다올마당' 첫 회의 개최

전주시가 전주천·삼천에 서식하는 수달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환경·동물·생태 전문가들이 수달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27일 별종위기 1급 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수달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수달 보호대책 다올마당'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수달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수달 서식지 보전 및 수생태계 훼손방지, 수달 서식 실태현황 등을 위해 오는 2018년 3월까지 추진되는 '전주천삼천 수달개체수 조사 및 보

전대책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전주 하천에 서식중인 수달 보호를 위해 그간 시에서 추진한 수달 보호 관련 설치시설,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 자유 토론 등을 진행하는 등 수달에게 최적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전주시는 앞으로 다올마당을 통해 수립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용역에 반영해 전주 하천에 서식하는 수달의 안전망을 갖출 계획이다. 동시에, 수달 서식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되는 사면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하천 감시활동을 해 나

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도시, 생물의 다양성이 살아있는 도시가 진정한 생태도시"라며 "환경·동물·생태 전문가 회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달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수달이 서식하는 전주천과 삼천 등 도심하천을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건강한 하천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수달 보호를 위해 평화동 원당교에서 서신동 전주천 합류점까지 곳곳에 생태실과 이동봉로, 생태탐방로 등 총 1만6,108㎡ 규모의 수달 보급자리를 조성했으며, 우림교와 효자교, 모전교, 이등교 언더패스 구간에는 로드킬로부터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가드레일과 그물망 등도 설치했다. /인재용 기자

### 신규 공공체육시설 3곳 확충

전주시가 시민생활권 주변에 야구장과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3곳을 확충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27일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고덕생활체육공원과 숲내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위탁운영 동의안이 의결됐다. 고덕생활체육공원은 완산구 색장동 일원 1만7,610㎡부지에 국제규격에 적합한 인조잔디 축구장 1면과 사위장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숲내생활체육공원의 경우 덕진구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내에 설치된 체육공원으로, 3만4,000㎡ 부지에 FIFA 규격에 맞는 천연잔디 축구장 1면과 야구장 1면이 각각 조성됐다. 숲내생활체육공원에는 또 새로운 야구장이 조성돼 경기 공간 부족으로 인한 야구 동호인의 갈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 진북동 원도심 마을계획추진단, 선진지 견학

진북동 원도심마을계획추진단 회원 40여명은 27일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 지역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선진지 견학은 진북동 원도심마을계획 수립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진북동 원도심마을계획추진단인 '숲장이 마을 공동체' 단원들이 모범 사례로 꼽히는 타지역 마을계획단의 경험을 공유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들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 마을계획추진단을 만나 마을계획 수립 사업의 진행과정과 활동 내역을 짚어 보고, 철거를 앞둔 고가도로를 산책로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준 우수 도시재생 사례이자 서울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떠오른 '서울로 7017' 공간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인재용 기자

국립서울시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